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Problems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in Single Parent Familie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 주 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istant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 for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problems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in single parent families with the parent resource perspective. The study consisted of 230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ingle parent (living with either mother or father only) families in the 4th year panel (2013)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All statistical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21.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found among adolescents who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s more affectionate. On the contrar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detected among adolescents who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s more intrusiveness. The more the inconsistent parenting practices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higher the degree of depression. Second, a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found among adolescent who were more likely to

* 이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r)

perceiv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including monitoring, affection and reasoning.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Third, a low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observed among adolescent who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Four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problems on life satisfaction, affection parenting of all positive parenting styles and depression among emotional problems had an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e more affectionate a parent is with his/her children in parenting, the lower the degree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and the lower degree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highe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as found among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households.

Key Words :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Adolescents in single parent households), 부모자원(Parent resources), 긍정적 부모양육태도(Positive parenting attitudes), 부정적 부모양육태도(Negative parenting attitudes), 정서문제(Emotional problems),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I. 서론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있어서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한부모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1).

전체적인 한부모 가정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청소년기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30~59세의 한부모 가구주의 가구 수가 133만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한부모 가구가 청소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안승순, 2014). 이와 같은 한부모 가구 수의 점차 증가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미리, 박주희와 정현숙(2014)에 따르면 양부모의 역할 분담과 균형으로 기능적으로 보다 적절한 양육 환경이 제공되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에 비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기능적 불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요구에 대한 갈등이 많고 역할 혼란을 경험하며,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지적, 사회적으로 원만한 자아 형성과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혜령, 2005). 청소년기의 이러한 개인적 변화와 함께 청소년 인구의 감소,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등과 같은 요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순성, 2010).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청

소년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발달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특히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병리적인 문제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수준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실시된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전제에 대한 긍정 답변의 비율에서 중국 청소년(93.3%)보다 한국 청소년(74.4%)들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의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인 11세와 13세,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루마니아(76.6점)와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큰 것이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94.2점이었으며 아이슬랜드(90.2점), 핀란드·스페인(89.8점)의 순이었다. 한국 사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특히 다른 국가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낮은 행복은 이후 성인기의 전체적 행복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때(Yang, 2008), 인간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부정적 삶의 인식은 학교 및 사회 부적응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우울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이현응·곽윤정, 2011)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병리적인 문제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인적 자원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 복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꼽을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원인 동시에 가정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대다수 부모들은 종종 지나친 통제와 기대 등 편향된 양육태도로 청소년들을 대하며,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한 경쟁하게끔 만든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체성을 탐색할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부적응에 따른 불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정체성을 발견한 학생들 역시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불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한민 외, 2012). 이렇듯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떠한 양육태도로 대하는가는 자녀의 정서와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나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려고 할 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고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예은, 2013).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자원에 기초한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은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하겠다. 한편 부모자원을 포함한 가정 자원은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가정의 소득 및 가족의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다루어져왔다(이선애, 2009; 추상엽·임성문, 2007; 이은우, 2006). 가정의 낮은 소득 수준 및 빈곤은 부모에게 위기로서 작용하며 아동의 발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Conger et al, 1994). 이러한 점에서 한부모 가정의 결핍된 가정 자원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자원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 자원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바람직한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부모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드물고, 일반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련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부모 자원의 유용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와 기존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쟁점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소홀해지고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 약화로 분노, 외로움, 상실감, 불안이나 죄책감 등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따름으로써 성장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정현, 2001; 주소희, 2003).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가족구조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구조보다는 가족관계적이고 기능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정현숙・서동인, 1997; 최해경, 1997).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긍정 반응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삶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enry, 1994; Gold beck 외, 2007; Hurbner, 2004; Anhalut와 Morries, 2008; Oner과 Yilmz, 2012; Gate er al., 2013). 한편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을 보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는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해 또래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가 다르다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가족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과 가족 내 역할의 문제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방진희, 2005). 이러한 불안과 함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는 무력감,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및 자기 유리와 같은 심리적 소외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민하영 외, 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욱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Gutmann과 Rosenberg, 2003).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심리・정서적 경험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 규명을 위한 지속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한부모 가정의 가정 자원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족의 바람직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의 시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 가정 자원 중 청소년 자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족 구성원인 부모에 대하여 자녀 양육 태도를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밝혀보고자 한다. 또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같은 부모자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한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한 예측 요인인 부모 자원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 자신의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근거한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자원의 영향력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개인 내부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하는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의 증진을 돕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정했다.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 및 삶의 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자원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이며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삶의 가치관, 태도, 생활 습관의 역할 모델이자 자녀가 접하는 가정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박미석 · 김지은, 2013). 가정 자원은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 실현과 욕구 충족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Deacon & Firebaugh,1988). 학자들은 가정 자원을 인적 · 비인적 자원, 대인적 · 경제적 자원, 인적 · 경제적 · 환경 자원 등으로 분류해 왔는데,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가정 자원을 파악할 때 하위 변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가족의 인적 자원 등을 동시에 고려해왔다(추상엽 · 임성문, 2007; 이선애, 2009). 이중 가족의 인적 자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변인으로 주로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Battle & Lewis, 2002; Eamon, 2005; 김광혁, 2007; 이선애, 2009)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인적 자원의 영향 및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부모가 가진 인적 자원의 영향력이 양부모의 경우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부모자원을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인적 자원으로 정의해 범위를 한정하여 개념을 구조화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하여 Gross와 동료들(1980)의 개념을 바탕으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자원 차원에 존재하는 부모양육태도를 통하여 살펴 볼 것이다.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과 분류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송설희, 1993).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oghughi et al.(2004)은 양육 태도를 자녀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부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엄경순(2002)은 광의적 개념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발휘되는 부모의 가치나 신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의 양육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장경선(2006)은 양육태도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으로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부모 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적 정서와 인식을 강조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연구의 초창기 학자들은 자녀의 양육에 중요하게 관련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 성향들을 선택하고 그 차원을 구분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를 유형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Shaefer, 1965), 최근 다수의 선행 연구들도 유형별(김재엽・정윤경, 2007; 서석남 외, 2012)분석을 하거나 긍정적・부정적 양방향으로 구분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소선숙 외, 2010). 그러나 부모마다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가 지니는 성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으로서의 부모의 양육 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개별적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손보영 외, 2012; 임혜림 외, 2014).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적대적이고 통제적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안현숙, 2000; 우임덕, 2013).

한편 부모의 실제 양육 행동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개념상으로 다르며 사실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그들의 심리적 장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의 실제 태도가 반드시 일치 될 수는 없다고 본다(이성희, 2002). 따라서 부모의 역할 유형은 부모가 가진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불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경주・오경자, 2002).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 보다는 청소년 자녀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임혜림 외(2014)의 연구는 애착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감독적 부모양육태도는 공격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발달과 행동 및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육 태도를 크게 청소년 자녀의 지각에 따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2)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한부모 가정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방진희(2005)는 한부모는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이것이 양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연(2003)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칭찬이나 격려 등의 강화를 많이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한 부모는 자신이 받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과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지니거나 개방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소희, 2003; Booth and Amato, 1991; Stoken외, 2005). 정계숙(2008)은 부자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 되어서도 가정 내에 조부모나 친척 등의 대리인이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아 모자 가정보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상황에 관한 다수의 미국 내 연구 문헌을 분석한 Ronerta(2015)의 연구를 보면 부자 가정의 경우 부자 가정이 되기 이전과 비교해서도 한부의 가사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녀들과의 놀이와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모의 경우는 한부에 비해 자녀와 더욱 친밀함을 유지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 행동의 경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자녀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해 볼 것이다.

2.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1) 정서적 문제의 정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기대 및 규범에서 벗어난 정서행동과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역기능적 정서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Wicks-Nelson and Ksrael, 1991). Kauffman(1993)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수행에 있어서 아동에게 적합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에서 벗어나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행동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재화 문제는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 문제를 말하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는 등의 행동 문제를 말한다(Achenbach and Edelbrock, 1893). 국내의 정의를 살펴보면, 홍경자(1986)는 정서행동 문제를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가면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서행동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가정, 학교를 포함한 적어도 둘 이상의 환경체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다른 장애와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김경희・황혜자, 1998).

2)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과 문제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의 양상과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통해 자녀들은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등의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오승환, 2001; 이수연, 2004; 홍순혜, 2004).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박영아, 2011), 정밀 검진이 필요한 심층 평가 대상 학생의 비율이 13.5%이상을 나타내며 우울, 불안, 대인관계 위축, 분노, 공격성과 같은 고위험군 학생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김선아(2011)는 초등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종단분석에서 이혼가정 자녀는 우울과 불안, 공격성 등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부모 가족의 기간이 지속될수록 자녀들은 정서적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한부모 가정이 된 이후 정서적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Wallerstein, Lewis and Julia, 20004). 김현숙(2015)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은 자녀의 자존감인 것으로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1)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안녕감(well-being)을 이루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개인의 인지적 판단 과정이다(Dien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삶의 만족도는 학자에 따라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well-being), 행복(happiness), 적응

(adjustment), 사기(morale), 만족(satisfaction) 등의 여러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주어 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로 인해 지속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이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도 자주 변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신변의 변화가 이어질 경우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곽금주, 1995; Henry, 1994; Suldo · Huebner, 2004).

최근 들어 삶의 질이나 심리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논의함에 있어 대상 집단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며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측정의 영역도 변화돼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으로 이 가운데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며 인간관계 이외에도 경제적 안정, 자기 조절, 화목한 가정, 성취 정도를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았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의 의의가 더욱 강조된다.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몇몇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김혜원과 홍미애(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삶의 질 정도가 성별,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소 외(2001)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다르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표를 보다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보는 반면, 여학생은 대인관계를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김신영과 백혜정(2008)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 계열별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조명한 외(1994)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등과 같은 인지적인 심리적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가족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신미 외(2010)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 지식 중심의 교육 제도, 경쟁적 구도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 성적과 삶의 만족도의 높은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다(유영달 · 이은지, 2010; Bynum과 Kotchick, 2006; Furnham and Cheng, 2000; Roberts and Steinberg, 1999). 부모의 양육 태도 중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와 부모의 애정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영달 · 이은지, 2010). 또 Bynum과 Kotchick(2006)의 연구는 청소년기는 가족의 울타리를 표면적으로 벗어나 심리적인 독립을 추구해 가는 시기지만 또 여전히 청소년의 심리나 안녕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간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높은 관심과 자율성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심리사회적 발

달,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and Steinberg, 1999).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자녀의 삶의 만족감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청소년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이 감소하는 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정의되었다(Henry, 1994; Goldbeck 외, 2007; Hurbner, 2004; Anhalut와 Morries, 2008; Oner과 Yilmz, 2012; Gate er al., 2013).

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할수록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은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안도희・김유리, 2012). 또한 부모의 돌봄적 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수희, 2011),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의 청소년 자녀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냈다(김경민, 2010). 부모가 성취적이고 애정적인 경우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에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영달・이은지, 2010). 삶의 만족도 개념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측면에서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개인의 정서 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별, 가구소득, 학업성적 만족도, 학교 계열을 통제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한부모 가정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3개 패널 중 중1 패널의 4차년도 자료이다. 연구 대상자는 1차년도 조사 시점에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지만 4차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연구 대상자 문항은 KCYPS 문항 중 보호자 대상 질문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의 지시문에 ‘1. 친아버지+친어머니’, ‘2. 친아버지만’, ‘3. 친어머니만’, ‘4. 친아버지+새어머니’, ‘5. 친어머니+새아버지’, ‘6. 새아버지+새어머니’, ‘7. 새아버지만’, ‘8. 새어머니만’, ‘9. 부모님 모두 안계심’ 중 택일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2, 3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선정하여 가족 형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연구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이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53.5%, 여학생 46.5%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정의 가족 구성을 보면, 부자 가정은 45.7%, 모자 가정은 54.3%로 나타났다. 학교 계열을 보면 일반고가 5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가 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다가 46.3%, 만족한다 33.8%의 비율로 나타났다. 가구연간 총소득액은 평균 2225.97만원(SD=13114.48)으로 나타났다 <표 1>.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항목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에서 정의된 요인과 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척도 항목 중 부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 태도, 청소년 자신의 정서 문제,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자신이 보고하였다. 모든 척도 항목들은 1점이 ‘매우 그렇다’, 2점이 ‘그런 편이다’, 3점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는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표 1〉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1	53.5
	여	105	46.5
가족 형태	부자 가정	105	45.7
	모자 가정	125	54.3
학교계열	일반고	111	50.2
	자율고	24	10.9
	특수목적고 (예체능, 과학, 외고, 마이스터고)	12	5.4
	특성화고	74	33.5
학업성적 만족도	매우 만족하다	15	6.5
	만족하다	78	33.8
	만족하지 않다	106	46.3
	매우 만족하지 않다	31	13.4
가구 연간소득	평균: 2,225.97만원(SD:1,314.48)		

* 결측값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1) 종속변인 : 삶의 만족도

패널의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연구 도구는 김신영 외(2006)가 사용한 3문항으로 각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다. 각 문항의 평점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세 문항을 모두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삶의 만족도 Cronbach's α 계수는 .79이다

2) 독립변인

(1) 부모자원인 부모양육태도

본 패널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검사(총 43문항)를 수정하여 총 21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이 척도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로서 허묘연의 척도 가운데 부모 감독형(3문항), 애정형(4문항), 합리적 설명형(3문항)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총 10문항).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모 감독형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등이 포함되며, 애정형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 설명형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자신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긍정적 양육 태도의 Cronbach's α는 .81이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부모감독형은 .84, 애정형은 .79, 합리적 설명형은 .79이었다.

부모양육태도 척도 중 부정적 양육 태도는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비일관성(3문항)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총 11개 문항). 각 하위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과잉기대는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등으로 구

성되어있다. 과잉간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등이 포함되며, 비일관성은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부모님 (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부정적 양육 태도의 Cronbach's α는 .67이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과잉기대가 .68, 과잉간섭은 .72, 비일관성은 .63이었다.

(2) 정서적 문제

패널의 정서적 문제 척도는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의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우울 척도는 김광일 외(1984)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척도를 토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우울 수준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를 역채점 처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공격성 수준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를 역채점 처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 척도는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위축 수준에 따라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를 역채점 처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정서적 문제의 Cronbach's α는 .85이며,

〈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	신뢰도
독립변수	부모 자원 특성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전체: 10문항, Cronbach's α = 0.81	부모감독형	3	.84
			애정형	4	.79
			합리적 설명	3	.79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전체: 11문항, Cronbach's α = 0.67	과잉기대	4	.68
			비일관성	4	.72
			간섭	3	.63
	정서적 문제 전체: 2 문항, Cronbach's α = 0.85		우울	10	.87
			공격성	6	.81
			사회적 위축	5	.87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	.79
통제변인		성별(남자=1, 여자=0) 연간 가구소득 학업성적 만족도(4=매우만족한다, 3=만족한다, 2=만족하지 않는다,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유형(1=일반고, 0=기타) 한부모 유형(1=모자, 0=부자)		4	

정서적 문제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우울 0.87, 공격성은 0.81, 사회적 위축 0.87이었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청소년 성별, 가구 소득, 학업 성적 만족도, 학교 계열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 태도 및 부정적 양육 태도), 정서적 문제(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정해 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 정서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 정서 문제,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원의 특성인 부모양육태도를 보면 먼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항목의 전체 대상자 평균값은 2.86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의 평균은 부모 감독형(M=2.99), 애정형(M= 2.89), 합리적 설명형(M=2.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항목의 전체 대상자 평균값은 2.54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보면 과잉기대(M=2.40), 비일관성(M=2.23), 간섭(M= 2.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적 문제 전체의 평균값은 2.11으로 중간값 2.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서 문제 하위 변인의 평균값은 사회적 위축(M=2.29), 공격성(M=1.99), 우울(M=1.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2.80으로 중간값 2.5점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 삶의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변인		M(SD)
부모 양육 태도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전체:2.86(.48)	부모 감독형	2.99(.66)
		애정형	2.89(.56)
		합리적 설명	2.70(.60)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전체:2.54(.58)	과잉 기대	2.40(.57)
		비일관성	2.23(.60)
		간섭	2.19(.62)
	정서적 문제 전체:2.03(.49)	사회적 위축	2.29(.70)
		공격성	1.99(.58)
		우울	1.91(.55)
	삶의 만족도		2.80(.58)

2.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 지각하는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문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 태도 중 부모의 애정(r =.17

〈표 4〉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부모자원 특성인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부모 감독형	부모 애정형	부모 합리적 설명	과잉 기대	과잉 간섭	비 일관성	우울	공격성	위축감	삶의 만족도
부모 감독형										
부모 애정형	.448*									
부모 합리적 설명	.289**	.607**								
과잉 기대	.331**	.056	.022							
과잉 간섭	.184**	-.147*	-.127	.643**						
비일관성	.172**	-.197**	-.175**	.388**	.614**					
우울	-.050	-.171*	-.129	.054	.131*	.120				
공격성	-.063	-.169*	-.078	.120	.275**	.189**	.550**			
위축감	.045	-.005	.010	.028	.126	.070	.518**	.357**		
삶의 만족도	.164*	.345**	.177**	.042	-.053	-.005	-.524**	-.293**	-.249**	

*p<.05, **p<.01

p<.05)과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 중 과잉간섭(r =.13 p< .05)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가 애정적 양육 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았고,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 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높았다. 긍정적 양육 태도인 부모의 애정(r =.17 p<.05)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인 과잉간섭(r =.28 p<.01), 비일관성(r =.19, p<.01)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았고, 부모가 과잉간섭,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의 감독(r=.16, p<.05), 부모의 애정(r =.35, p<.01), 합리적 설명(r =.18, p<.01)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내포하는 긍정적 양육 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양육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서 문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r=-.52, p<.01), 공격성(r=-.29, p<.01), 사회적 위축감(r =-.25, p<.01)과 같은 정서 문제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우울감, 공격성, 사회적 위축감의 정서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W계수, VIF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들의 DW계수는 각각 1.87, 1.95, 1.99로 2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VIF 값은 모두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표 5>와 같다. 이 중 불연속변수인 성별, 한부모 가족형태, 학교 계열은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모델I 은 통제변수와 삶의 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 설명력은 1%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t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성별(β=.14, p<.05), 성적 만족도(β=.22, p<.01), 학교 계열(β=.16, p<.05)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 중 남자(아들)가 여자(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일반고에 재학중인 청소년 자녀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통제변인, 부모자원 변수인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전체 설명력은 16.4%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t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성별(β=.15, p<.05), 학업성적 만족도(β=.18, p<.01), 학교계열(β=.17, p<.05), 부모애정형(β=.31 p<.001)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 중 남자가 여자보다 삶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일수록, 부모 애정의 긍정적 양육태도

〈표 5〉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변인				삶의 만족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통제변인		성별(남자=1, 여자=0)		.16	.14*	.17	.15*	.07	.06
		연간 가구 소득		-.03	-.05	-.03	-.04	-.04	-.06
		학업성적 만족도(1=매우 만족한다, 2=만족한다, 3=만족하지 않는다, 4=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6	.22**	.13	.18**	.07	.10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 0=기타)		.19	.16*	.19	.17*	.05	.05
		한부모 유형(1=모자, 0=부자)		.04	.04	.13	.11	.12	.11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부모 양육 태도	부모감독형			.05	.06	.03	.04
			애정형			.37	.36***	.31	.31***
			합리적 설명			-.07	-.07	-.08	-.08
		부정적 부모 양육 태도	과잉 기대			.01	.01	.03	.03
			과잉 간섭			-.09	-.10	-.06	-.07
			비일관성			.07	.08	.11	.11
	정서 문제		우울					-.47	-.45***
			공격성					.02	.02
			사회적 위축					-.00	-.00
상수				3.06		1.91		2.82	
Adjusted R^2				.058		.163		.336	
F값				3.68**		4.89***		8.29***	
DW				1.99		1.87		1.95	
VIF				1.04~1.09		1.06~2.46		1.11~2.56	

*p<.05, **p<.01, ***p<.001

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통제변인, 부모자원 변수인 부모양육태도, 정서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전체 설명력은 33.6%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t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긍정적 부모 태도 중 부모애정형(β=.31 p<.001), 정서 문제 중 우울(β=-.46, p<.001)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문제 중 우울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 애정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우울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자원인 부모양육태도(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스스로의 정서적 문제(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상태인지,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적 문제 및 삶의 만족도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를 분석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 자원인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는 부모 감독형, 애정형, 합리적 설명의 순으로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과잉기대, 비일관성, 간섭의 순으로 척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 스스로의 정서적 문제 전체의 평균값이 중간값 보다는 낮게 나타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문제의 하위 영역별로는 사회적 위축, 공격성, 우울의 순으로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삶의 만족도는 중간값 보다는 높게 나타나 삶에 대해 다소 긍정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스스로의 정서 문제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건강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 구조보다는 가족 관계 특성이나 기능, 또는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원인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적 문제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애정형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은 낮게 나타났다. 부모 과잉 간섭형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비일관성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긍정적 양육 태도를 지닐 때 청소년 자녀의 행동,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Roberts and Stenberg, 1999; 김경민, 2010; 유영달・이은지, 2010; Gate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것이며,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관여가 오히려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안도희・김유리, 2012; Oner와 Yilmaz, 2012)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부모 가정에서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의 중요성과 부모의 지나친 관여의 청소년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원인 부모양육태도, 정서적 문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

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긍정적 양육 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양육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서적 문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의 정서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 스스로의 정서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넷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 애정형, 정서문제 중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에는 불안과 우울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이삼연, 2002; 이수연, 2004; 신미 외, 2012)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부모로부터 청소년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나 애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다음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부모 가정의 가족기능 강화와 한부모의 청소년 자녀양육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긍정적 양육 행동을 제공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긍정적 부모양육 행동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부모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부모역량강화 교육의 시행을 위한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개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임혜림 외, 2014). 부모가 건전하고 효과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교육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하여금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관한 이해 및 자녀와의 대화법 등 자녀 양육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부모가 이러한 사회적 교육에 거리낌이나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한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한부모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과 보호를 요하는 위기 가정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더욱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모든 한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조속한 실현이 요구되며 또 이를 위해 한부모 가정 부모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한부모가 건전하고 건강한 부모양육태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부모의 성립 유형에 관한 본 연구의 조사에서 이혼에 의한 한부모 성립의 경우가 다수였음을 고려할 때 한부모 자신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으며 또 한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자녀들에게

건전한 양육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재적 관련 요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로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공공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자조 모임 프로그램들을 한부모의 각기 다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우울 문제는 가족환경의 변화 문제이거나 또는 생애 발달 과정상 청소년기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로부터 초래된 영향 일 수 있다. 우울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중요한 정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울의 정서문제를 갖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들이 심리정서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와 사회가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에 대해 자녀의 우울과 관련된 예방, 회복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학교 내 상담교사나 학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우울 극복을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 교사나 학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대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에 대한 우울의 조기 발견과 그들의 우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시행해 전문가로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우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이 갖는 문제의 범위도 대단히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폭넓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 기관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더욱 폭 넓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진했던 몇 가지 제한점을 밝혀 둔다. 첫째,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 자원인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스로의 정서 문제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인들의 투입을 통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에 관한 폭넓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3개 패널 중 1개 패널의 보고를 자료로서 사용하여 연구 대상 표본이 제한적이었으며 또 이 패널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된 측정 도구도 제한적이어서 결과의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광범위하고 충분한 연구대상에 대하여 정교하게 개발된 측정도구를 적용함으로써 한부 가정과 한모 가정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에 관한 심층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곽금주(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2(1), 269-297.
2) 김광일・김재원・원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3)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아동학회지, 28(5), 127-141.
4) 김경민(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5) 김경희・황혜자(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6)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시리학회지, 15(2), 19-39.
7)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승렬・최지영・이가영(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 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8) 김신영・백혜정(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9) 김선아(2011). 이혼가정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문제의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요인과의 관계: 결혼가정과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6(3), 1-54.
10) 김선희・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11) 김수희(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재엽・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궤적 및 예측 요인.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13) 김현숙(2015). 한부모 가족의 기간이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47(3), 5-28.
14) 김혜령(2005). REBT 집단 상담이 여고생의 스트레스 및 부적응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김혜원・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연구, 14(2), 269-297.
16) 김혜정(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의 조절 효 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민하영·이윤주·김경화(2008).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 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5-23.
18)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관계. 한국심리학회 : 임상, 21(1), 29-43.
19) 박미석・김지은(2013).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79-198.
20)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 족도. 교육심리연구, 16(2), 63-92.
21) 박영아(2011). 2011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결과. 교육과학기술위원 박영아 의원 자료집.
22) 박영신・김의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4), 973-1002.
23) 방진희(2005).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

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5) 보건복지부(2014).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6) 서석남・이상구・임상호(2012). 전환기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27) 소선숙・송미경・김청송(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28)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29) 송설희(1993). 家族類型과 知覺된 父母의 受容-拒否가 青少年의 自我正體感 形成에미치는 影響.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성정현(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31) 신미・전성희・유미숙(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32) 안도희·김유리(2012). 기대 및 가치 신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3), 293-319.
33) 안승순(2014).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열등감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안현숙(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엄경순(1992). 父母의 養育態度와 兒童의 社會成熟度 및 스트레스와의 關係.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 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37) 우임덕(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유영달・이은지(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 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91-115.
39) 이미리・박주희・정현숙(2014).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 특성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147-160.
40)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41) 이선애(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42) 이성희(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 이수연(2004).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403-423.
44) 이순성(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5) 이은우(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47-274.
46) 이예은(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 이현응・곽윤정(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48) 임혜림・김서현・정익중(2014).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49)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여성가족부.
50) 장경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 정계숙(2008). 한부모 가족 아동의 사회, 정서적 유능성 발달 : 동거 부모와 주양육자의 영향. 아동학회지, 29(3), 207-222.
52) 정현숙・서동인(1997).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53) 조명한・김정오・권석만(1994). 청소년 삶의 질, 社會科學과政策硏究, 16(2), 61-94.
54) 조봉환・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55) 조성연(2003). 부모양육방식과 태도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5(2), 47-59.
56) 주소희(2003).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7)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58) 추상엽・임성문(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3), 143-157.
59) 통계청(2014). 2014년도 인구주택총조사.
60) 하은혜・오경자・송동호・강지현(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인지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2), 263-179.
61) 한민・최이철・김범준・이훈진・김경미・류승아(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 타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62)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 홍경자(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65) Achenbach, T. 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66) Anhalt, K. & Morris, T. L.(2008). Parent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nxiety and depression : A multivariate approcah. Journal of Early and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s, 5(3), 122-137.
67) Booth, A., & Amato, P.(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4), 396-407.
68) Battle, J. & Lewis, M.(2002).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class : The relative effects of race and socioeconomics status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overty, 6(2), 21-35.
69) Bynum, M. S. & Kotchick, B. A.(2006).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utonomy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29-542.

70)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5(2), 541 -561.
71)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 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and Bacon, Inc.
72)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73) Eamom, M. K. (2005). Social-demographic, school, neighborhood, parenting influenc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Latino young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 nces, 34(2), 163-174.
74) Furnham, A. & Cheng, H.(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 gy, 35,(10), 463-470.
75) Gate, M. A., Watkins, E. R., Simmons, J. G., Byrne, M. L., Schwartz, O. S., Whittle, S., Sheeber, L. B. & Allenm, N. B.(2013). Mater nal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depre ssion: The mediating role rumination. Journal of Clinical and Adolescents Psychology, 42(3), 348-357.
76)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4th ed). New York : Prentice-Hall.
77) Gutmann, J. & Rosenberg, M.(2003). Emo tional intimacy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mparison between single-parent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Educational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al Psychology, 23(4), 457-472.
78) Goldbeck, L., Schmitz, T. G., Besier, T., Her schbach, P. & Henrich, G.(2007), Life satisfa 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ity of Life Research, 16(6), 969-979.
79) Henry, C. S.(1994). Family system character istics,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4), 447-455.
80) Hoghughi, M. & Long, N.(2004). Handbook of parenting: Theory and research for practice. London and Thousand Oaks, CA: SAGE.
81) Huebner, E. S.(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 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3-33.
82) Kauffman, J. M.(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5th ed.). N.Y.: Macmillan.
83) Onder, F. C. & Yilmaz, Y.(2012).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yles in predicting delinquent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Sciences : Theory and Practice, 12(3), 1744-1748.
84) Roberta, L. C.(2015). Single-father famil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7(2), 144-166.
85) Roberts, G. M. & Steinberg, L.(1999). Unpac king authoritative parenting :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 age and the Family. 61(3), 574-587.
86)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 elopment, 36(2), 413-424.
87) Storken, I., Roysamb, E., Moum, T. & Tambs, K.(2005). Adolescents with a childhood experi ences of parental divorce: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28(6), 725-739.
88) Suldo, S. M. & Huebner, E. S.(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165-195.

89) Wallerstein, J. S. & Lewis, J. M.(2004).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Report of 25-years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21(3), 353-370.

90) Wicks-Nelson, R. & Israel, A. C.(1991).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2nd Ed.). New Jersey : Prentice-Hall.

91) Yang, Y.(2008). Social inequalities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 투 고 일 : 2015년 12월 30일
■ 심 사 일 : 2016년 1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22일